

만개의 燈·꽃 공양 부처님 오신 뜻 찬탄

연화플라워 내달22일 문화체육관서

1만명의 불자와 1만개의 등, 1만 송이의 꽃이 한데 어우러져 부처님 탄생을 예경하는 장엄한 화장세계(華藏世界)를 이룬다.

연화플라워와 연화정자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서 주관하는 '만개연화공양법회'가 4월22일 오후3시 MBC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다치 화엄의 세계를 연상케 할 이번 행사는 불교 꽃꽂이의 정수와 음악, 무용 등 각종 불교 전통의식이 총망라된 대형무대

로, 행사장 자체가 하나의 형형한 빛을 발하는 법계를 이룰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수회의 정명스님과 보명스님이 꽃꽂이를 시현, 화관을 불전에 올리고 30명의 꽃꽂이 화원이 미리 준비한

꽃꽂이 음악·무용·전통 화혼예식 등

불전화를 올리는 의식이 정갈한 동작으로 전개된다. 이어 참석한 사부대중이 꽃으로 장엄한 만다라화와 오단화에 탄생불을 봉안,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



연화플라워 회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만등만화행사를 펼친다. 사진은 92년 조계사 앞 들에서의 꽃공양 모습.

연화플라워 회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만등만화행사를 펼친다. 사진은 92년 조계사 앞 들에서의 꽃공양 모습.

신부가 2층이 꽃을 부처님께 올리는 화혼 예식도 시현된다. 따라서 이 행사는 불전공양 의식의 역사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7경화'에서 연유해 지금도 불교의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때 신랑이 5송이,

고 말했다.

육법공양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법패와 작법(축)이 함께 펼쳐지는 '만등만화공양법회'는 불교의식의 정립과 불교문화 창달에 한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필선기자)

“밝은 생각, 밝은 말, 밝은 표정, 밝은 행동은 안팎으로 우리의 삶에 부처님을 출현케 하지요. 웃으며 사는 것은 부처님을 중심에 맞이하게 해 365일 부처님을

인 터 뷰

호작실 홍미경 불자

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호작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웃으며 살시다' 운동요원이 다. 관음사나 호작실로 전화, 편

양양 선림원사지 도로건설로 훼손

보물급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강원 양양군 서면 활이리 선림원사지가 불법건축물과 도로건설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도기남을 53호로 지정된 선림원사지에는 선림원지 3층석탑(보물 444호), 선림원지 석등(보물 445호), 홍각선사탑비(보물 446호), 선림원지부도(보물 447호) 등 보물급 문화재 4점이 보존돼 있다.

그러나 절터는 지난 50년대

6평규모의 너와집이 불법으로 지어지워 무수인들에 의해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

군관계자는 "선림원지 석축에 대한 설계가 끝나는데도 4천만원의 들여 보수에 착수하겠다는"고 밝혔다.

움직이는 박물관 전국 순회 전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운영하는 '움직이는 박물관'이 24일 서울역 광장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전시회에 들어갔다.

'선사인의 돌문화' '유적발

굴 사진전 '민화로 보는 박물관' 등의 전시 주제로 구성된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생활 도구 65점을 비롯해 문화 만화책, 유적발굴사진 등이 전시된다.

총회·심사위원 회의 청소년문화진흥회, 8일

한국불교 청소년 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영)는 제69차 총회 및 심사위원회를 4월8일 오후5시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진흥회는 제13회 불교 아동문학상과 4회 찬불가요가

사 제2회 불교아동문학상 신인상등을 심사하고 지난해 보급된 불교청소년 도서 및 음반 심의를 한다.

불교음악 특별공연 KBS, 4월8일

KBS국악관현악단이 꾸미는 '종교음악의 밤-불교' 특별 연주회가 4월12일 오후 8시 KBS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승무' '담놀이' '아재아재' 등 불교 음악이 공연된다.

박상진(동국대)교수가 지휘한다.

불교미술 '한자리에' 상설전시관 '대불광' 내달1일 개관

불교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전시되는 '대불광(大佛光)'이 4월1일 문을 연다.

현재 활동중인 불교 미술작가중 권위 있는 작가들의 역작만을 엄선해 상설 전시하는 '대불광'에서는 불상, 탕화, 석조불, 법상, 사리함 등 다양한 부분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간 불교 미술품에 대한 감상의 기회는 작가들의 작품전이나 개인적 교류에 한정됐던 것이 사실, 때문에 '대불광'의 개관을 계기로 불교 미술 작가들의 의욕적인 활동과 관람자들의 감상의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되는 작품의 80% 이상이 문화재보존 기능인 또는 불미진 입상자의 작품으로서 '대불광'은 불교미술의 현주소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개 관계자들의 견해다. 개관식에는 20여명의 작품이 전시되지만 역량이 있는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계속 늘려 전시할 계획이다.

또 '대불광'은 감상자와 작가들이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도 공개된다.

관장 허길홍씨(조각)는 "이 곳은 교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불교미술 전문갤러리입니다. 오늘의 불교 미술을 이끌어 가는 책임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함으로써 불교미술의 영역과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전시장 개관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불광'의 개관식은 1일 오후3시에 거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목정배교수가 축하강연을 한다. (문의=738-1117)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한 대불광 전시실

밝은 마음 가꾸는 일 '큰 불사'

'웃으며 살시다' 엮서 나눠주기 1년

친경하게 합니다.

1년전부터 '밝게 살시다', '웃으며 살시다' 운동을 벌이며 온세상에 부처님의 광명을 나눠주고 있는 호작실(好作室) 주인 홍미경씨의 말이다.

밝은 삶은 웃음이 있는 삶이다. 엮서 크기의 캔버스에 주황색 크레용으로 활짝 웃는 햇님(비로자나 부처님을 의미)을 그려서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홍씨, 그녀는 부처님뿐 아니라 웃음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을 소재로 다양

지로 신장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불사(佛事)중의 큰 불사는 밝은 마음 가꾸는 일입니다. 밝아지려면 먼저 활짝 웃어야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기뻛고 만사가 좋아집니다. 언제나 방광불을 웃는 것으로 불국정토가 이루어집니다. 웃으며 살시다.'

대구 관음사(주지 원명)도 홍씨의 '웃으며 살시다' 운동에 동의, <관음회보>를 통해 이같은 취지를 알리고 있다.

'만다라'의 화가 이석조씨가 7년만에 개인전을 열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청담동 한국갤러리에서 열리는 이석조의 '소리'전은 7년이란 기간 동안에 화가의 변모된 그림 세계를 보는 좋은 기회, 이씨는 만다라화의 전형을 새로운 시각과 화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다라화의 정교함을 단순미로 대체시키고 법계의 삼라만상을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이씨



이석조 작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상범 시인 회갑 시화전

내달 5일~11일 인사갤러리

자 두번째 화집인 '오두막집'은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언어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만의 거리를 한쪽 좁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바로 시의 혼을 떼어 그림에게 얹어주고 가다가는 그림의 삶을 떼어 시에게 목숨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하게 한 셈입니다. 제작년에 낸

중견 시인 이상범씨가 화집을 맞아 시화집 '오두막집'을 내고 소품전을 갖는다.

이 시인의 시화집은 자연과 삶의 정서를 불교적 시각으로 그려낸 시와 그의 소품(나이프페인팅)으로 구성됐다. 시화집의 특징은 묘사된 현상이 역사성을 갖는 것, 즉 이 시인은 동학의 현장, 연해주 지역, 소외된 농촌들을 기행하며 그곳에서 얻은 영감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해 한권의 시화집을 묶은 것이다. 이 시인의 열번째 시집이

(고요시범) 이후의 신작들을 묶은 것인데 독자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고 싶다는 시적 혹은 화가적 욕망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 합니다"

이 시인은 사람에 대한 시적 관찰을 그림과 함께 독자에게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화집에 수록된 그림들은 '자연'을 소재로 한 삼의 시적 소묘'란 주제로 4월5일부터 11일까지 인사동 인사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죽음의 두려움 벗고자 지옥계불화 다량 제작

원광대 김정희교수 '영·정조 미술' 연구

조선 중기 영·정조시대에 지옥계불화가 성행한 이룬 까닭은 무엇일까.

왜란과 호란의 대전란을 치루고 난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에서 명부신앙이 중요한 민간신앙으로 성행하고 지장보살도, 시왕도(十王圖), 감로왕도(甘露王圖) 등의 지옥계불화가 전시에 비해 다량으로 조성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8일 오후2시 동국대박물관서 열린 한국미술사연구소 주최, '영·정조 시대의 미술'이란 주제의 발표회에서 원광대 김정희교수(고고미술사학과)가 제기한 것.

당시 불화의 구도에 있어서는 고려나 조선전기까지도 일부 나타났던 이단구도(二段構圖)는 완전히 사라지고 중앙의 커다란 본존을 주위 권속들이 빽빽히 둘러싸는 군도(群圖)형식이 자리잡게 되었고, 채색은 녹색과 적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다양한 채색으로서 부처님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강조했다. 형태는 평평하면서도 화려한 묘사가 극치를 이루었고, 이런 특징은 지역별 화파별로 다양한 도상(圖樣)으로 전개됐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김재경 기자)

진리의 전화

부처님 동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 상담) 여기 저해의 문이 있습니다. 따뜻한 가정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759-3033~6

이석조 화가 7년만에 개인전

30일까지 청담동 한국갤러리

보고 마음으로 교감하는 그림을 통해 저는 문명의 원형질을 찾아 보고자 했습니다. 불화가 갖는 풍부한 소재와 상상력은 기계문명을 극복하는 정신문명의 기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뉴에서 청년시절까지를 절에 은 절자한 인간의식의 탐구와 맑은 정서의 표현이 조화롭게 부여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림은 무성(無聲)의 언어입니다. 눈으로

가볼만하냐 저시회

이석조 화가 7년만에 개인전

인사장

먼저 삼보님께 귀의하옵니다.

지난 6년간 '리 선행' 법사님이 이끌어 오셨던 '수미산 여행사'를 1995년 4월 1일부터 덕 없는 소남이 맡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부대중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큰 발전을 보았습니다만 더 많은 지도와 이용을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수미산 여행사'는 해외 여행업 허가뿐이어서 국내 여행을 못했었습니다만 이제 국내 여행업 허가를 득해 명실공히 '국내외 해외여행'의 모든 서비스를 사부대중의 요구에 따라 충실하게 심부름을 할 자세로 모든 직원이 대기중에 있사오니 국내외의 성지순례, 기도처 순방, 방생법회 등과 사찰수련회 및 국내외 항공권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부하는 모임인 '진여회'는 제1기 '금강경' 강의를 끝내고 제2기 '원각경' 강의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불교의 기초교리를 공부하려 하오니 불자이면서 자칫 지나쳐버렸던 작은 상식들을 이번 기회에 꼭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기 2539년 4월

수미산 여행사

대한불교조계종 진여회·회장 무기 박진성
임직원 일동 합장

희소식

함평 해수 약찜

바닷물, 유황성분의 돌, 약썩의 복합적 효능

저희 함평 해수 약찜은 80여년 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널리 이용되어온 신비한 치료법입니다. 소나무로 달군 유황성분의 돌을 약썩과 솔잎을 넣은 바닷물에 넣어 물을 달린 후, 심하게 아픈 곳을 찜질하고 약탕을 함으로

효능

- 알레르기성 피부병
- 비만
- 관절염, 류머티스
- 악성 무좀
- 피부 미용 등
- 비듬
- 허리,팔다리 쭈시기

약찜에서 머물실 분

약찜은 1탕에 18,000원, 약썩 2,000원 계 20,000원(4인 1탕시 5,000원)이며 식사는 한끼에 3,500원이지만 주방 시설이 되어 있어 밥을 지을 수 있으며, 숙박비용은 2인까지 1일 1만원, 3인부터 8인까지는 1일 2만원입니다.

동참금: 50,000원(약탕 3회-4인 1탕, 식사 3회, 왕복교통비 포함)
출발장소: 조계사 앞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TEL : 02) 732-0181-3

수미산 여행사

국내부 창설 기념 행사

해인사 정대불사 및 조상 천도재(1박 2일)

- 4월 8일(음력 3월 9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출발
- 익일 오후 3시 도착 예정
- 동참금: 25,000원(3식 및 교통비 포함)
- 출발장소: 조계사 앞
- 경유지: 반포 뉴코아 신관 주차장 앞 오전 6시 40분

* 해인사 정대불사금 30,000원 및 영가 천도 1위당 10,000원은 별도

선찰대본사 범어사 보살계(2박 3일)

- 4월 12일(음력 3월 13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 출발
- 4월 14일(금요일) 오후 4시 30분 도착 예정
- 동참금: 30,000원(교통비, 입장료, 2박 5식 포함)
- 출발일 중식 및 도착일 중식은 별도
- 출발장소: 조계사 앞
- 경유지: 반포 뉴코아 신관 주차장 앞 오전 6시 40분

* 보살계 동참금은 30,000원이며 별도입니다.

예약 및 문의: 732-0181~3